

#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레코-로만의 공동 식사

-튀시아(θυσία) 희생제의로 살펴본 그리스도교의 성찬-1)

조재형\*

## 1. 들어가는 말

그리스도교 성찬은 그리스도교 신학과 예배 개혁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가톨릭교회나 정교회에 비해서 성찬에 대한 신학과 의식(ritual)이 부족하였고, 매주 성찬을 거행하는 가톨릭과 정교회조차도 성찬을 주로 유대교적 배경에서 복음서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왔다. 이런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이 논문은 사상사 비평법(History of Ideas)을 사용해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공동식사를 그레코-로만 종교의 ‘신성한 식사’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교 성찬의 기원과 신학을 추적하는 것이다.<sup>2)</sup> 구체적

---

\* 케이씨(그리스도)대학교 강사, 신약학.

- 1)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2110).
- 2) 러브조이(Arthur Lovejoy)는 인류 역사의 시간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상(idea)이 어떻게 각 영역에서 표현되고, 보존되고, 변화되는가를 살펴서 그것의 기원을 추적한다. 그는 사상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영역들을 철학, 과학, 문학, 예술, 종교, 정치로 본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이 영역 중 하나 이상에 공통적으로 더 많은 것[사상의 단위(unit-ideas)]이 있으며 지적 세계의 가장 다양한 지역에서 동일한 아이디어가 종종 나타나고 때로는 매우 위장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상의 단위’를 “소수의 심오한 사상이 또는 저명한 작가의 교리 또는 견해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단의 집단적 사고에 있는 구체적인 단위 아이디어의 표출”에 관심을 가진다. Arthur O. Lovejoy, *The Great Chain of Being: A Study of the History of an Idea* (Cambridge: Harvard

으로 신성한 식사는 튀시아(θυσία) 희생제의에서 가장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등장하는 그리스 고전 작품을 분석하여, 바울이 그것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변경하여 자신의 작품에 담았는지 고린도전서에서 추적한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거룩한 식사와 관련해서 설명하고(고전 8-10장), 특별히 그레코-로만 튀시아 희생제가 명확하게 나타나며(10:18-21), 그레코-로만의 신성한 식사로 성찬을 해석하기 때문이다(고전 11:17-34). 그러므로 이 논문은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과 튀시아 제의가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해서, 고린도전서의 성찬을 그레코-로만의 공동식사로 연구한다. 먼저 국내외 학자들의 간략한 연구사를 개괄함으로써 이 연구의 의의와 학문적 위치를 가늠해 보겠다.

---

University Press, 1936; repr., 1948), 1-23; 마크 베위어는 사상사비평법이 “문화 이론”을 추적하여 “의미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한다. Mark Bevir, *The Logic of the History of Ide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 비록 일부 비평가들은 ‘사상의 단위’가 더 이상 유용한 분석 도구나 적용 가능한 장치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러브조이의 추종자들까지도 그 개념을 수정하지만, 지난 수 십 년 간 정기적인 그의 책에 대한 인용과 분석은 그의 이론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성서학 분야에서는 그레고리 라일리가 그의 대표적인 저작들을 이 방법론으로 저술했으며, 사상사 비평법을 문학적으로 적용한 미메시스 비평을 테니스 맥도날드가 사용하였다. Gregory J. Riley, *The River of God: A New History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HarperCollins, 2001); *One Jesus Many Christs: How Jesus Inspired Not One True Christianity but Many* (Minneapolis: Fortress, 1997); *Resurrection Reconsidered: Thomas and John in Controvers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5); Dennis R. MacDonald, *Mythologizing Jesus: From Jewish Teacher to Epic Hero*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5); *The Gospels and Homer: Imitations of Greek Epic in Mark and Luke-Acts*, vol. I, *The New Testament and Greek Literature* (Lanham-Boulder-New York-London: Rowman & Littlefield, 2015); Dennis Ronald MacDonald, ed. *Mimesis and Intertextuality in Antiquity and Christianity*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1); Dennis R. MacDonald, *The Homeric Epics and the Gospel of Mark*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Christianizing Homer: The Odyssey, Plato, and the Acts of Andrew*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2. 선행 연구와의 비교

지금까지 그리스도교 성찬(또는 성만찬, 주의 만찬)은 주로 유대교의 유월절 전승 속에서 연구되었다<sup>3)</sup>. 대표적인 학자는 예레미아스(J. Jeremias)이다. 그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실제적인 유월절 식사로 본다.<sup>4)</sup> 예레미아스와는 반대로 디스(Gregory Dix)는 그리스도교 성찬이 예수의 마지막 만찬에서 기원하지만, 그것이 유월절 식사는 아니라 유월절 식사가 있기 24시간 전에 행했던 ‘카부로뜨’(chaburoth) 만찬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울과 복음서의 성찬 단락을 똑같은 배경으로 본다.<sup>5)</sup> 리츠만(Hans Lietzmann)은 디스보다 더욱 강하게 유월절 기원을 부정하면서 그리스도교 성찬을 헬라사상과 헬라 희생제의 속에서 찾는다. 그는 원시 교회에서 복음서를 근거로 빵만으로 하는 예루살렘 성찬과 바울 서신을 근거로 빵과 포도주로 하는 바울 기원의 성찬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각 신약성서에 나오는 성찬 단락의 독특성을 보지 못한다.<sup>6)</sup> 반면에 스미스,<sup>7)</sup> 버커트,<sup>8)</sup> 질(Gill)<sup>9)</sup>과 호네아(Honea)<sup>10)</sup> 등은 그레코-로만의 거룩한 식사의 예를 튀시아에서 심도 있게 묘사하여 이것을 신약성서의 성찬 단락을 설명하는데 이용한다.<sup>11)</sup> 맥콘넬(John F.

3) 잔자크 폰 알렌, 『주의 만찬』, 박근원 역 (서울: 양서각, 1986), 9.

4) Joachim Jeremias, *The Eucharistic Words of Jesu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41-49.

5) Gregory Dix, *The Shape of the Liturgy* (London: Dacre Press, 1945), 50-55.

6) Hans Lietzmann and Robert D. Richardson, *Mass and Lord's Supper: A Study in the History of the Liturgy* (Leiden: E J Brill, 1979), 204-08.

7) Dennis E Smith, "Meal Customs (Sacred Meals)," in *Anchor Bible Dictionary* 4, ed. David Noel Freedman (New York: Doubleday, 1992), 654.

8) Walter Burkert, *Greek Relig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34-57.

9) David Gill, *Greek Cult Tables*, ed. Gregory Nagy, Harvard Dissertations in Classics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1), 11.

10) Sion M. Honea, "Homer's Daitos Eises, the Greek Sacrificial Meal," *Journal of Ritual Studies* 7:2 (1993), 53-67.

11) Jae Hyung Cho, "The Johannine Eucharist in the Light of Greco-Roman Religion,"

McConnell)은 선도적으로 그리스도교 성찬과 그레코-로만의 밀의종교를 비교하였지만, 보수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에 집착해서 그 관련성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린다. 그럼에도 그의 연구는 바울의 성만찬과 밀의종교의 관련성에 대한 학계의 많은 연구 정보를 제공한다.<sup>12)</sup> 맥코넬과 비슷하게 내쉬(Nash)는 그레코-로만의 신비종교의 특징과 그리스도교 성찬을 상세하게 비교하지만, 결론은 주의 만찬은 고대 이교 숭배를 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13)</sup>

그레코-로만의 공동식사 관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성찬을 연결시킨 학자는 데니스 스미스(Dennis E Smith)와 할 타우직(Hal Taussig)이다.<sup>14)</sup> 그는 그레코-로만 시대에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인들도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 ‘데이프논’(δείπνον)이라는 연회와 그 이후에 특정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포지엄이 정형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예를 플라톤을 비롯한 그리스 문학 작품들에서 찾는다.<sup>15)</sup> 그의 주장은 성찬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예수와의 관련성은 약화시키지만, 성찬을 그레코-로만의 식탁관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국내 학자들도 유대교 배경에서 주로 성찬을 연구하였다.<sup>16)</sup>

Ph. D.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10), 39-42.

12) John F. McConnell, “The Eucharist and the Mystery Religion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10:1 (1948), 30-37.

13) 로날드 H. 내쉬, 『복음과 헬라문화』, 이경직 · 김상엽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218-34.

14) Dennis E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할 타우직,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사회적 실험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 조익표 · 조영희 · 장영진 · 이난희 역 (서울: 동연, 2018).

15) Dennis E Smith, “Meal Customs (Greco-Roman),” in *ABD* 4, ed. David Noel Freedman (New York: Doubleday, 1992), 650;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21-27.

16) 김익식, “성만찬의 기원과 초기 구조에 대한 연구,” 『신학과세계』 45 (2002), 202-30; 이어진, “디다케 9-10장의 성만찬 연구,” 『장신논단』 48:2 (2016), 175-200; 김승년, 『주의 만찬 회복-주의 만찬의 기원과 의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143-46; 최홍진, “요한의 성만찬,” 『신약논단』 11:4 (2004), 775-96; 정장복, “성만찬의 역사적

최근에 이런 흐름과는 달리, 몇몇 학자들은 그레코-로만 세계와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정치적 지형 속에서 형성된 ‘호혜’라는 개념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7-34절에 담긴 공동식사를 분석하여 성찬 담론을 경제학과 문화인류학적으로 해석하고<sup>17)</sup>, 식사의 사회학이라는 짐멜의 관점에서 신약성서 공동 식사의 신학적 지형학을 그려서 현대교회의 성만찬이 모두를 위한 균등한 배분과 마지막 식사를 넘어 메시아의 향연을 담아내는 종말론적 식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18)</sup> 정우홍은 데니스 스미스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로마 식사 관습이 고린도전서(11:17-34)의 성찬 단락에 반영되어 있으며, 고린도교회는 로마의 문화와 관습에 깊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로 발생된 교회의 분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성찬을 기술했다고 주장한다.<sup>19)</sup> 비슷하게 우진성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고린도교회의 성만찬은 제의이면서 동시에 한 끼의 완전한 식사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평등공동체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냈다고 본다.<sup>20)</sup> 필자는 위의 학자들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들의 의견을 발전시켜서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과 쾰리아 제의를 먼저 살펴본 후 그것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공동식사 본문을 살펴보겠다.

---

의미와 위치성 회복문제,” 「장신논단」 2 (1986), 222-52.

- 17) Rohun Park, “Between and Beyond Reciprocity and Communion,”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1 (2016), 157-73.
- 18) 차정식, “음식과 식사의 신학적 지형학,” *Canon&Culture* 2:2 (2008), 99-135.
- 19) 정우홍, “로마 식사 관습을 통한 고전 11:17-34절 해석,” 「신학지남」 67:4 (2000), 256-74.
- 20) 우진성, “고린도교회의 주의 만찬에 나타난 “배고픈 자들”과 “술 취한 자들”의 정제,” 「신학연구」 61 (2012), 38-67.

### 3.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과 튀시아(θύσια) 희생제의

#### 3.1. 그레코-로만 식사관습<sup>21)</sup>

헬라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인과 그리스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을 따랐다. 스미스는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일상적인 식사, 희생제사 식사, 일상의 유대교 식사, 신비종교 식사, 유대교 축제 식사, 장례식사, 그리스도교 아가페 식사, 그리스도교 성찬, 심포지아를 포함하는 공통적인 식사 관습이 있었다고 주장한다.<sup>22)</sup> 실제로 “지중해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들은 모두 그 당시에 식사를 중심으로 모였다.”<sup>23)</sup> 이것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기대어 눕기’(reclining)였다. 식사 참가자들은 ‘카우치’(긴 의자, 침상, 소파)에 왼쪽 팔꿈치로 몸을 기대어 누워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다.<sup>24)</sup> 플라톤도 식사를 할 때 침대나 긴 의자에 기대어 눕는 모습을 묘사한다(*Republic* 372b-e).<sup>25)</sup> 데이비드 노이(David Noy)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지키는 유월절 식사에서도 그 당시의 공식적인 관습인 그레코-로만의 기대어 눕는 식사관습을 따랐다. 이러한 관습은 그 사회 정황에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화였기 때문에 가난한 유대인들도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sup>26)</sup> 이 식사관습은 두 개의 잘 정립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었

21) Cho, “The Johannine Eucharist in the Light of Greco-Roman Religion,” 33-36을 참조하라.

22)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2-5.

23) 타우직,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사회적 실험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 57.

24) Smith, “Meal Customs (Greco-Roman),” 650-51.

25) Plato, “Republic,” in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ed.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New York: Pantheon Books, 1961), 618-19.

26) David Noy, “The Sixth Hour Is the Mealtime for Scholars: Jewish Meals in the Roman World,” in *Meals in a Social Context*, ed. Inge Nielsen and Nanne

다. 첫 번째는 ‘데이프논’이라는 저녁식사(연회)이고, 두 번째는 심포지엄이라는 ‘술 마시는 주연’이었다. 심포지엄 때 여러 가지 공연이 이뤄지며, 참석자들은 편안하게 술(포도주)을 마시면서 대화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sup>27)</sup> 연회가 끝나면 포도주로 기념하는 헌주를 통해서 주연이 시작됨을 알렸다.<sup>28)</sup> 그러므로 공식적인 연회로서의 데이프논은 저녁과 밤에 배설(排設)되며,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는 부분과 술을 마시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29)</sup> 이 그레코-로만의 식사는 사회적 가치들이 표현되고 공고화 되었는데, 마티아스 클링하르트는 그 가치들을 “공동체(koinonia),” “평등과 우정(isonomia와 philia),” “이상적인 정치적 가치로서 표현된 은혜/관대함/아름다움(charis)”이라고 제시한다.<sup>30)</sup> 이 가치들 중에서 ‘코이노이아’(koinonia)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식사에서 “기대 높은 사람들의 순서, 음식 몫의 분배, 영예를 돌리고 축배하는 연속적인 순서, 그날 저녁의 주연장이 누구인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가 등의 주제를 기억”하여 코이노이아를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보장한다.<sup>31)</sup> 공동식은 평등과 우정의 가치를 지향했지만 기대 높은 사람들의 서열(주연장의 오른쪽이 더 높은 사람의 자리)과 서열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음식이 제공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반영하였다. 그렇지만 “공동체와 우정의 밀접한

---

Sigismund Nielsen, *Aarhus Studies in Mediterranean Antiquity* (Aarhus, Denmark: Aarhus University Press, 1998), 140.

27)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27.

28) 타우직,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사회적 실험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 70.

29) Cho, “The Johannine Eucharist in the Light of Greco-Roman Religion,” 34.

30) Matthias Klinghardt, *Gemeinschaftsmahl Und Mahlgemeinschaft: Soziologie Und Liturgie Frühchristlicher Mahlfeiern* (Tubingen: Francke, 1996), 153-55를 타우직,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사회적 실험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 71-72에서 인용됨.

31) Klinghardt, *Gemeinschaftsmahl Und Mahlgemeinschaft: Soziologie Und Liturgie Frühchristlicher Mahlfeiern*, 155가 타우직,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사회적 실험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 72에서 인용됨.

관련은 그러한 서열 및 특권과는 긴장관계”에 있었지만, 이 긴장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 우정과 평등을 드러내기도 했다.<sup>32)</sup>

### 3.2. 뉘시아(θυσία) 제의에 나타난 신성한 식사<sup>33)</sup>

신성한 식사는 희생제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그레코-로만 시대에 모든 데이프논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희생제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sup>34)</sup>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희생제의는 종교 의식의 중요한 형식이었으며, 고대 축제의 핵심 요소였다. 그 중에서도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의는 그 자체가 극적인 요소와 특별한 시각적인 효과(피와 불과 연기)를 가지고 있어서 곡물과 과일로 드리는 제의보다 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 동물의 피와 살을 이용한 희생제의를 그리스 종교에서는 ‘뉘시아’(θυσία)라고 한다.<sup>35)</sup> 이 용어 자체는 “드리는 행위,” “희생제의,” “희생제의 식사”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sup>36)</sup> 스미스에 의하면, 그리스의 가장 흔한 희생제의를 동물을 도살하고, 포를 떠서 제단에서 태우는 행위를 한 후에 제사장들과 예배자들이 희생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먹는 ‘뉘시아’이고, 희생동물을 도살한 후 태우지 않고 제단에 모두 바치고, 먹는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32) 타우직,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사회적 실험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 73-74.

33) Cho, “The Johannine Eucharist in the Light of Greco-Roman Religion,” 37-41을 참조하라.

34)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85.

35)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서울: 부크크, 2018), 94.

36) Walter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ed. Frederick W. Danker, trans. William F. Arndt and F. Wilbur Gingrich, 3rd and revise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repr., 2000), 462.

제의는 ‘스파기온’(sphagion)이다.<sup>37)</sup> 그는 튀시아 제의에 늘 명백한 잔치(feast)가 뒤따랐기 때문에 향연과 튀시아 제의가 똑같은 사건의 두 측면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종교적 사건이 희생제의를 포함할 때 항상 잔치를 포함하고, 이 잔치는 반드시 종교적 의미와 연관되어 있었다.<sup>38)</sup> 윌터 버커트도 동물 희생제의(튀시아 제의)는 지역마다 세부적인 것은 달랐지만, 기본적인 요소는 제사 드릴 동물을 제의적으로 도축한 다음에 그 고기를 함께 먹는 식사가 함께했다고 주장한다.<sup>39)</sup> 신에게 받쳐졌던 고기를 참여자들이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신과의 합일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사이의 연합까지 만든다.<sup>40)</sup> 튀시아 제의의 완전한 형태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타난다. 『일리아스』 1권 458-474에서 사제 크뤼세스는 아폴론 신에게 기름으로 짠 넓적다리 뼈들을 태워서 바치고, 나머지 고기들을 구워서 참여자들이 공평하게 나눠서 먹는 튀시아 제의를 바친다.<sup>41)</sup> 『일리아스』 2권 420-431에서도 비슷한 튀시아 제의의 모습을 기록한다. 즉, “드디어 일[제의와 요리]이 끝나자 그들은 음식을 차려 먹었는데, 공평한 식사에 마음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공평한 식사’를 강조한다. 이 공평한 식사를 ‘데이토스 아이세스’(daitos eises)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배자들 사이의 존경과 책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공동체의 연대성을 제공한다.<sup>42)</sup>

사실 70인역(LXX)에서 튀시아는 히브리어 ‘제바’(קָרְבָּן)의 번역으로 약 400회 정도 나온다. 그 뜻은 희생, 소제, 소제물, 화목제, 제물, 헌물 등으로 번역되어서 동물 희생제의뿐만 아니라 식물 및 곡물을 이용한 제의에도 사용된다. 그레코-로만의 튀시아에 정확하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은 ‘화목제’이다.

37)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68.

38)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69.

39) Burkert, *Greek Religion*, 57.

40)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94.

41) 호메로스, 『일리아스』, 천병희 역 (과주: 도서출판 숲, 2015), 48.

42) Honea, “Homer’s Daitos Eises, the Greek Sacrificial Meal,” 66-67.

이것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붓고, 기름기 있는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가슴과 다리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먹는다.<sup>43)</sup> 그래서 데이비드 질(David Gill)은 그리스의 뛰시아와 이스라엘의 ‘셀라민’(**שְׁלַמִּים** 왕상 8:63, 64)이 다같이 소량의 제물을 신에게 태워서 바치고, 나머지를 예배자들이 공동의 신성한 식사로 먹었다고 한다.<sup>44)</sup> 그러나 셀라민이 사용될 때는 많은 경우에 ‘제바 하셀라뎀’ (**שְׁבַע הַשְּׁלַמִּים** 왕상 8:63)처럼 ‘제바’와 함께 나온다. 비록 70인역은 식물과 곡물을 이용한 제의까지도 뛰시아로 번역했지만, 그리스 제의에서는 뛰시아는 동물 희생제와의 신성한 식사가 함께 따르는 제의를 지칭하고 있다.

#### 4.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뛰시아(*θύσια*) 제의와 공동식사

##### 4.1. 고린도교회의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뛰시아 제의(고전 8-10장)

고린도교회는 다양한 이유로 분열이 있었다.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전 1:11).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 분열에는 세례가 형식상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1:12-16). 바울은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복음은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17-31).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강조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강조된다. 특히 바울은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43) Steven Barabas, “Sacrifice,” in *The Zondervan Pictorial Bible Dictionary*, ed. Merrill C. Tenney (Grand Rapids: Zondervan, 1967), 737-40.

44) David H. Gill, “Thysia and SELMiM: Questions to R Schimid’s Das Bundesopfer in Israel,” *Biblica* 47:2 (1966), 255.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2:7)라고 쓰고 있다.<sup>45)</sup>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바울과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3:4-7), 바울은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말하면서(3:18-21),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3:22-23). 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친다(4:5). 그 판단의 근거에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4:7).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의 교만을 다시 지적하면서(4:10-13),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경고한다(4:18-20).

이러한 경고를 기반으로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 중에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질책한다(5:1). 바울이 더욱 통탄하는 것은 이들이 교만해져서 음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였다는 사실이다(5:2-6).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5:7a)이라고 비유하면서,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습니다.” (5:7b)라는 흥미로운 진술을 한다.

헬리어 “τὸ πάσχα ἡμῶν ἐτύθη Χριστός”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양으로 묘사하면서도 “에뛰떼”(ἐτύθη)를 사용해서 그레코-로만의 뛰시아 제의로 해석한다. 이 용어는 “희생제사를 드리다,” “도살하다,” “제의적으로 도살하다”라는 뜻을 가진 ‘뛰오’(θύω)의 3인칭 단순과거 수동태이다.<sup>46)</sup> ‘뛰오’의 명사형이 바로 ‘뛰시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을 다룰 때 배경적 지식을 제공한다.

바울은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약탈하고, 우상 숭배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전 5:10), 오직 신도(형제)라 불리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고 명령한다(5:11). 여기에서 ‘사귀지 말라’는 ‘함께 먹지도 말라’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그리스도가 고린도교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악덕을

45) 이 논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성서구절은 『새번역』을 사용한다.

46)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463.

행하는 교인들은 그 제의(예배) 다음에 이어지는 신성한 식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플루타르크(Plutarch)에 의하면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식사가 아니라 단순히 ‘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공동식사라는 관점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10장의 거룩한 식사를 논하고 있다.<sup>47)</sup> 무엇보다 이 거룩한 식사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관련되어 있다. 개역개정에서 ‘우상의 제물’로 번역하고 주요 영어성서 번역본(NIV, NRS, RSV 등)에서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친 음식’으로 번역한 헬라어 ‘에이돌오뫼토스’(εἰδωλόθυτος)는 신약성서에 약 11번 나오는 데, 그 중 6번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특히 8장에서 4번 나온다.<sup>48)</sup>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 경우의 장소에서 우상에서 바친 고기와 마주쳤다. 첫째는 ‘우상의 신당’(고전 8:10)이며, 둘째는 ‘귀신들의 식탁’(고전 10:21)이며, 셋째는 ‘시장’(μακέλλω, 고전 10:25)이며, 넷째는 불신자들의 가정(고전 10:27)이었다. ‘귀신들의 식탁’은 ‘우상의 신당’과 ‘불신자들의 가정’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가정과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아주 위험한 에이돌오뫼토스를 대면해야 했다.<sup>49)</sup>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21절에서 성찬을 설명할 때 앞에서 설명한 그레코-로만 쩌시아 제의의 개념을 사용한다. 특별히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 20-21절에 명료하게 나타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참여하는 축복의 잔(ποτήριον τῆς εὐλογίας)과 빵(ἄρτον)은 그리스도의 피(αἵματος τοῦ Χριστοῦ)와 몸(σώματος τοῦ Χρι

47) Lee M. Jefferson, “The Pagan Feast and the Sacramental Feast: The Implication of Idol Food Consumption in Paul’s Corinth,” *Sewanee Theological Review* 51:1 (2007), 22.

48) 행 15:29, 21:25; 고전 8:1, 4, 7, 10; 10:19, 28; 계 2:14, 20. “things offered unto idols”(KJV); “things sacrificed to idols”(NAS); “food sacrificed to idols”(NIV, NRS); “food offered to idols”(RSV).

49) Jefferson, “The Pagan Feast and the Sacramental Feast: The Implication of Idol Food Consumption in Paul’s Corinth,” 24.

σου)이라고 지적하여, 전형적인 성찬 제정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10:16).  
 뛰시아 제의 속에서 고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σώματος τοῦ Χριστοῦ  
 οἱ ἐσθιόντες τὰς θυσίας κοινωνοί)과 같이 그리스도교인들은 하나님의 뛰시  
 아(θεῶ) [θύουσιν])에 참여하여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교의  
 성찬에 참여한다. 바울은 또한 귀신에게 바친 뛰시아(θύουσιν, δαιμονίους)를  
 하나님의 뛰시아(θεῶ) [θύουσιν])와 비교하여 그레코-로만의 뛰시아 제의의  
 의미와 구조를 가지고 성찬을 설명한다(10:19). 또한 “주의 잔”(ποτήριον  
 κυρίου)과 “귀신의 잔”(ποτήριον δαιμονίων)을 대비시키고, “주의 식탁”(τρ  
 απέζης κυρίου)과 “귀신의 식탁”(τραπέζης δαιμονίων)을 비교하여 성찬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잔과 식탁을 뛰시아 제의를 기반으로 해석한다  
 (10:20-21).<sup>50)</sup> 놀랍게도 여기에서 바울은 “마치 이방제의를의 식사와 그리스  
 도교의 식사가 똑같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그 둘을 비교하였다.”<sup>51)</sup> 그래서  
 “고린도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관련된 바울의 대응은 직접적으로  
 초기 교회 교부들의 오염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한 성찬  
 (Eucharist)에도 영향을 주었다.”<sup>52)</sup> 즉,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음식인 에이돌오뎀토스”를 “물질적 힘과 코이  
 노이아(koinonia)의 연합을 구체화한 성찬으로 대체했다.”<sup>53)</sup> 에드워드 피터  
 스(Edward H. Peters)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코이노이아가 아니냐? 우리가 떤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코이노이아가 아니냐?” 로 해석하여 이것을 더욱 구체화한다.<sup>54)</sup> 코이노

50) Cho, “The Johannine Eucharist in the Light of Greco-Roman Religion,” 41-42와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102-03을  
 참조하라.

51)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174.

52) Jefferson, “The Pagan Feast and the Sacramental Feast: The Implication of Idol  
 Food Consumption in Paul’s Corinth,” 23.

53) Jefferson, “The Pagan Feast and the Sacramental Feast: The Implication of Idol  
 Food Consumption in Paul’s Corinth,” 23.

이야가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에서 “참여”(participation)라는 뜻보다는 “상호 이익과 배당에 연관된 매우 밀접한 공동단체”라는 뜻으로 압도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피터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sup>55)</sup>

바울은 시장에서 팔리고 또 신자들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에이돌오뎨토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10:25-28).

고전 10:25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26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7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냐,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28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 주거든, 그렇게 알려 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25 Πᾶν τὸ ἐν μακέλλῳ παλούμενον ἐσθίετε μηδὲν ἀνακρίνοντας διὰ τὴν συνείδησιν·  
26 τοῦ κυρίου γὰρ ἡ γῆ καὶ τὸ πλήρωμα αὐτῆς. 27 εἴ τις καλεῖ ὑμᾶς τῶν ἀπίστων καὶ θέλετε πορεύεσθαι, πᾶν τὸ παρατιθέμενον ὑμῖν ἐσθίετε μηδὲν ἀνακρίνοντας διὰ τὴν συνείδησιν. 28 νὰν δὲ τις ὑμῖν εἴπῃ· τοῦτο ἱερόθυτόν ἐστιν, μὴ ἐσθίετε δι’ ἐκεῖνον τὸν μὴνύσαντα καὶ τὴν συνείδησιν. (강조는 필자가 함).

왜냐하면 그레코-로만 식사관습에서 손님이 배설된 음식을 거부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고 매우 이상한 행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sup>56)</sup> 바울은 ‘에이돌오뎨토스’를 먹는 것은 그 당시 그레코-로만 식사관습을 문화로서 따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튀시아 제의와 제의 후에 제공되는 ‘에이돌오뎨토스’가 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

54) Edward H. Peters, “St. Paul and the Eucharist,”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10:3 (1948), 250쪽의 “Τὸ ποτήριον τῆς εὐλογίας ὃ εὐλογοῦμεν, οὐχὶ κοινωνία ἐστὶν τοῦ αἵματος τοῦ Χριστοῦ; τὸν ἄρτον ὃν κλῶμεν, οὐχὶ κοινωνία τοῦ σώματος τοῦ Χριστοῦ ἐστίν;”을 참조하라.  
55)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552-53.  
56) Jefferson, “The Pagan Feast and the Sacramental Feast: The Implication of Idol Food Consumption in Paul’s Corinth,” 29.

연합을 만들어내듯이, 고린도교회에서 그리스도교의 성찬은 그 대상을 귀신에서 주님으로 바꾸어서 그리스도교인들을 코이노이아로 초대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한 쉰시아 제의에 나타나는 동물희생제의의 구조와 거룩한 식사의 기능 속에서 성찬을 설명한다.

#### 4.2. 그레코-로만의 신성한 식사로 살펴 본 주의 만찬(고전 11:17-34)

스미스는 고린도전서 11장과 갈라디아서 2장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식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유일한 본문들이라고 지적한다.<sup>57)</sup>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의 식사는 ‘주의 만찬’과 관련되어 밀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17-34절은 고린도교회의 분열의 정황을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과 연결하여, 그리스도교의 성찬을 신성한 식사로 해석한다.<sup>58)</sup> 바울은 그들이 모일 때에 분열이 있었으며(18절), 그 분열은 식탁에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고(20절) 지적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식탁에서 공평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만찬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21-22절).<sup>59)</sup> 즉,

고전 11:18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19 하기가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21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 끄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57)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173.

58) 정우홍, “로마 식사 관습을 통한 고전 11:17-34절 해석,” 274를 참조하라.

59) Richard F. Oster, *1 Corinthians*, The College Press NIV Commentary (Joplin: College Press Publishing Company, 1995), 266.

취합니다. 22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18 *πρώτον μὲν γὰρ συνερχομένων ὑμῶν ἐν ἐκολλησίᾳ ἀκούω σχίσματα ἐν ὑμῖν ὑπάρχειν καὶ μέρος τι πιστεύω.* 19 *δεῖ γὰρ καὶ αἱρέσεις ἐν ὑμῖν εἶναι, ἵνα [καὶ] οἱ δόκιμοι φανεροὶ γένωνται ἐν ὑμῖν.* 20 *Συνερχομένων οὖν ὑμῶν ἐπὶ τὸ αὐτὸ οὐκ ἔστιν κυριακῶν δεῖπνον φαγεῖν.* 21 *ἕκαστος γὰρ τὸ ἴδιον δεῖπνον προλαμβάνει ἐν τῷ φαγεῖν, καὶ ὃς μὲν πεινᾷ ὃς δὲ μεθύει.* 22 *μὴ γὰρ οἰκίας οὐκ ἔχετε εἰς τὸ ἐσθίειν καὶ πίνειν; ἢ τῆς ἐκκλησίας τοῦ θεοῦ καταφρονεῖτε, καὶ καταισχύετε τοὺς μὴ ἔχοντας; τί εἶπω ὑμῖν; ἐπαινήσω ὑμᾶς; ἐν τούτῳ οὐκ ἐπαινώ.* (강조는 필자가 함).

고린도교회는 내부적으로 ‘데이프논’에 참여하는 방식 때문에 분열되어 있었다. 바울은 이들이 모여서 데이프논을 먹을 때에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해서 교회 내의 분열을 만든 것을 책망한다(17-22).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18절)와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34절)는 구문론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식탁에서 모여서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sup>60)</sup> “바울은 ‘주의 만찬(*κυριακῶν δεῖπνον*)과 ‘각자 자기의 만찬’(τὸ ἴδιον δεῖπνον)을 비교하여 데이프논을 주의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원래 그레코-로만의 데이프논에서 음식의 종류와 양은 참석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달랐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관습적으로 해왔던 식사관습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데이프논을 행했다. 바울은 이 데이프논을 차별이 없는 주의 만찬으로 제시하여 참여자들의 연대성을 만들고 ‘각자 자기의 만찬’과 경계를 정한다.<sup>61)</sup>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비교했을

60)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176.

61)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200을 참조하라.

때 중요한 어구들 사이에 유사점들이 있다(예를 들면, τοῦτό ἐστιν τὸ σῶμά μου,<sup>62</sup> ἔλαβεν ἄρτον<sup>63</sup>) (또는 λαβὼν ἄρτον),<sup>64</sup> εὐχαριστήσας,<sup>65</sup> ἔκλασε v<sup>66</sup>). 이것은 공관복음서의 마지막 만찬 전승을 공유하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는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sup>67</sup> 게다가 바울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이 주 예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성찬의 모델을 그레코-로만의 밀의종교의 기술적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한다(23절).<sup>68</sup> 이 주의 만찬은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전해 받은 것(고전 15:3)과 똑같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sup>69</sup> 바울은 예수가 잡히시던 밤(또는 배반당하던 밤, ἐν τῇ νυκτὶ ἣ παρεδίδετο)에 주의 만찬이 행해졌다고 말한다. 예수가 행한 만찬이나 고린도교회의 데이프논은 그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 공간은 식탁에서 일어났다. 바울 당시의 교회 구조가 가정교회(house church) 형태였고,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은 식당이었을 것이다.<sup>70</sup> 그러므로 식탁 앞에서 만찬이 행해졌으며, 이것이 그리스도교 예배의 한 형태를 형성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그레코-로만 뉘시아 제의에서

62) 막 14:22, 마 26:26, 눅 22:19, 고전 11:24. 실제적으로 고전 11:24은 약간 다르게 보이지만 거의 똑같다.

63) 고전 11:23b.

64) 막 14:22, 마 26:26, 눅 22:19.

65) 고전 11:24, 막 14:23, 마 26:27, 눅 22:19.

66) 고전 11:24, 막 14:22, 마 26:26, 눅 22:19.

67) W. D. Davies and Dale C. Allis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3 vols., vol. 3,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88), 466.

68) Hans Conzelmann, *1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ed. George W. MacRae, trans. James W. Leitch, Hermeneia-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195-96; 조태연, 『예수운동-그리스도교 기원의 탐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20.

69) 바울은 오직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15장 1,3절에서만 “그 자신이 받고” “전한”전승을 말할 때 이 기술적 용어들(παρέλβον, παρέδωκα)을 사용하여 강조한다. 조태연 『예수운동-그리스도교 기원의 탐구』, 29.

70)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177.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참석자들이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했듯이, 그리스도교 예배도 대상만 바꾸어서 그레코-로만 뛰시아 식사관습을 이용해서 진행되었다. 바울 당시의 로마 종교의 성전이나 개인적인 집에서 열리는 식사는 음식을 먹는 부분과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시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전통적인 데이프논과 심포지엄의 형식을 따랐다.<sup>71)</sup> 할 타우직(Hal Taussig)은 고린도전서 11장 24-25절은 만찬(δειπνον)을 하는 동안에 빵에 대한 축복과 주연(symposium)의 첫째 잔을 신에게 바치는 헬레니즘 시대의 표준적인 만찬을 분명하게 따랐다고 지적한다.<sup>72)</sup> 25절에서 바울은 “식후에”(μετὰ τὸ δεῖπνῆσαι)라는 어구를 집어넣어 마가와 마태가 주의 만찬을 예수의 마지막 만찬에서 찾는 것과는 달리 그레코-로만의 식사 관습으로 주의 만찬을 설명한다.<sup>73)</sup>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에서 심포지엄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토론과 노래, 찬미 등을 했다. 예수도 데이프논 후에 포도주를 들어서 말씀하였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묘사되는 방언을 비롯한 많은 영적 활동들은 바로 식당의 식탁 앞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sup>74)</sup>

24절과 25절의 “이것을 행하여”(τοὔτο ποιεῖτε)는 직접적으로 희생제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75)</sup> 왜냐하면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를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그가 다시 올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5-26절). 예수가 뛰시아 제의의 희생제물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빵과 포도주가 제공되는 만찬에 참여해서 공평한 식사(데이트스 아이세스)를 함께 나누면서 동일한 식사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

71) Jefferson, “The Pagan Feast and the Sacramental Feast: The Implication of Idol Food Consumption in Paul’s Corinth,” 28;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179.

72) 타우직,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사회적 실험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 106-7.

73)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175.

74)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179.

75) Peters, “St. Paul and the Eucharist,” 248.

다.<sup>76</sup>)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몸과 피로 만들어진 코이노이아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즉, 27절에서 바울은 다시 식사로 인한 고린도교회의 분열과 무질서의 주제로 돌아가서,<sup>77</sup>)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한다. 게다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만찬에 참여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몸도 약해지고, 죽기까지 할 수 있다(28-32절).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상당히 대중적인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일반적인 공동식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28-32절을 동일시한다. 그러면서 “먹을 때 함께 먹어라”라는 전통적이고 세속적인 조언을 그의 교회의 공동체 식사 윤리를 위한 본질적인 조언으로 바꾼다. 그들은 반드시 먹을 때 똑 같은 장소에서(34절) 똑 같은 시간에(33절)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sup>78</sup>)

33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34 배가 고프은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33 Ὡστε, ἀδελφοί μου, συνερχόμενοι εἰς τὸ φαγεῖν ἀλλήλους ἐκδέχεσθε. 34 εἴ τις πεινᾷ, ἐν οἴκῳ ἐσθιέτω, ἵνα μὴ εἰς κρίμα συνέρχησθε. τὰ δὲ λοιπὰ ὡς ἂν ἔλθω διατάξομαι. (강조는 필자가 함)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안의 분쟁과 편당이라는 실제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위의 조언을 하였다.<sup>79</sup>)

76) George Arthur Buttrick, ed. *The Interpreter's Bible V 10 Corinthians; Galatians; Ephesians Bible Versions, English* (Nashville, TN: Abingdon Pr, 1953), 139-40을 참조하라.

77) Buttrick, *The Interpreter's Bible V 10 Corinthians; Galatians; Ephesians Bible Versions, English*, 141-42.

78) Smith,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198.

##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바울 서신의 성찬 논의를 공동체식사의 보다 넓은 사회적 지형 안에 놓고 이것을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과 신성한 식사와 비교하여, 구약성서의 유월절 형식과 다른 입장에서 고찰했다. 예레미아스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도교의 성찬을 유대교 배경에서 연구한 것과는 달리 스미스, 버커트, 질, 호네아, 클링하르트 등은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과 희생제의(특히 뛰시아 제의)에서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스미스와 클링하르트는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에 대한 치밀한 고찰을 하였다.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의 특징은 기대어 놓기, 데이프논과 심포지엄으로 이어지는 식사의 순서, 그 순서를 연결시켜주는 헌주의식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식사를 통해서 그레코-로만 문화의 사람들은 코이노이아(공동체), 우정과 평등의 가치관을 창출하여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경계를 설정하였다.

신성한 식사는 그레코-로만의 뛰시아 제의 안에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고린도교회에서 식사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성찬을 잘 설명해 준다. 그레코-로만 시대의 모든 형태의 식사는 희생제와의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동물의 피와 고기를 이용해서 드리는 뛰시아 제의는 중요했다. 뛰시아 제의 후에는 반드시 참여자들이 함께 먹는 식사가 따랐기 때문에 그 식사는 종교적 의미를 항상 포함했다. 신에게 받쳐졌던 고기를 예배자들은 함께 동등하게 나눠 먹음으로써 신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사이의 연대감을 강화했다. 뛰시아 제의는 호메로스의 작품 속에서 온전한 형태로 등장하고, 심지어는 70인역에서도 히브리어 제바가 뛰시아로 번역되어 약 400회나 나타나며, 신약성서에는 약 20회가 나타난다. 이것은 뛰시아 제의의 구조와 의미가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신약성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바울은 뛰시아를 하나님의 뛰시아와 귀신의 뛰시아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그리스도교의 성찬을 위해서 사용한다. 마치 뛰시아 제의를 이용해서 이방제

---

79) 조태연, 『예수운동-그리스도교 기원의 탐구』, 42.

의와 식사와 그리스도교의 식사를 동전의 양면처럼 비교해서 제시한다. 그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이들로뫼토스)를 공동체(코이노이아)의 연합을 구체화한 성찬으로 대체하여 그리스도의 피의 코이노이아와 그리스도의 몸의 코이노이아로 구체화한다(10:16).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7-34절의 주의 만찬을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의 배경에서 해석한다. 고린도교회가 먹을 때에 분열이 있었던 것(34절)은 예배 때에도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회 다음에 이어지는 주연에서 찬양과 기도, 영적 활동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고린도교회가 소규모의 가정교회에서 모였다면, 그 교회의 예배는 식당의 식탁 앞에서 드러졌을 것이다. 빵과 포도주가 제공되는 만찬에서 그들은 공평한 식사(데이토스 아이세스)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한 동일한 식사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다. 공동체의 식사 윤리에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하다(11:33-34). 성찬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그리스도교 예배의 기원 자체가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을 수용한 성찬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또한 필자는 고린도전서의 공동 식사를 그레코-로만의 뉘시아 제의로 해석하여, 고린도교회가 당면했던 종교적, 사회적 정황을 고찰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바울의 성찬을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과 뉘시아 제의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기원을 제공하는 풍성한 성찬 신학 담론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sup>80)</sup>

---

80) 또한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과 뉘시아 제의로 바울의 성찬을 해석하면 보다 개방되고 연합된 성찬 예전과 신학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각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성찬을 초대 그리스도교처럼 매주 행하여 그리스도의 희생과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그레코-로만 희생제의 후에 항상 신성한 식사가 뒤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먹거리에 참여해서 먹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교 예배는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성찬이 주는 본래적인 공동식사의 정신을 살려서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도울 수 있으며, 함께 사회적 나눔의 윤리도 실천할 수 있다.

**<주제어>**

고린도전서, 공동식사, 튀시아, 식사관습, 성찬

**<Key words>**

1 Corinthians, Common Meal, Thysia, Meal Custom, Eucharist

\* 접수일 2019년 7월 31일, 수정일 2019년 9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0월 1일

## 참고문헌

- 김승년, 『주의 만찬 회복-주의 만찬의 기원과 의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김의식, “성만찬의 기원과 초기 구조에 대한 연구,” 『신학과세계』45 (2002), 202-30.
- 내쉬, 로날드 H, 『복음과 헬라문화』, 이경직·김상엽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 알벤, 잔자크 폰, 『주의 만찬』 박근원 역, 서울: 양서각, 1986.
- 우진성, “고린도교회의 주의 만찬에 나타난 “배고픈 자들”과 “술 취한 자들”의 정체,” 『신학연구』 61 (2012), 38-67.
- 이어진, “디다케 9-10장의 성만찬 연구,” 『장신논단』 48:2 (2016), 175-200.
- 정우홍, “로마 식사 관습을 통한 고전 11:17-34절 해석,” 『신학지남』 67:4 (2000), 256-74.
- 정장복, “성만찬의 역사적 의미와 위치성 회복문제,” 『장신논단』 2 (1986), 222-52.
-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서울: 부크크, 2018.
- 조태연, 『예수운동-그리스도교 기원의 탐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 차정식, “음식과 식사의 신학적 지형학,” *Canon&Culture* 2:2 (2008), 99-135.
- 최홍진, “요한의 성만찬,” 『신약논단』 11:4 (2004), 775-96.
- 타우직, 할,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사회적 실험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 조익표·조영희·장영진·이난희 역, 서울: 동연, 2018.
- 호메로스, 『일리아스』, 천병희 역, 파주: 도서출판 숲, 2015.
- Barabas, Steven, “Sacrifice,” In *The Zondervan Pictorial Bible Dictionary*, edited by Merrill C. Tenney, Grand Rapids: Zondervan, 1967, 737-40.
- Bauer, Walt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lated by William F. Arndt and F. Wilbur Gingrich, Edited by Frederick W. Danker, 3rd and revised ed.

-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2000.
- Bevir, Mark, *The Logic of the History of Ide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Burkert, Walter, *Greek Relig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 Buttrick, George Arthur, ed., *The Interpreter's Bible V 10 Corinthians; Galatians; Ephesians Bible Versions, English*, Nashville, TN: Abingdon Pr. 1953.
- Cho, Jae Hyung, "The Johannine Eucharist in the Light of Greco-Roman Religion," Ph. D.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10.
- Conzelmann, Hans, *1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Translated by James W. Leitch, Hermeneia-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Edited by George W. MacRa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 Davies, W. D., and Dale C. Allis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Vol. 3, Edinburgh: T. & T. Clark, 1988.
- Des Places, E., "Sacrifice, II (Greco-Roman)," In *New Catholic Encyclopedia*, Detroit: Gale, 2003, 508-10.
- Dix, Gregory, *The Shape of the Liturgy*, London: Dacre Press, 1945.
- Gill, David, *Greek Cult Tables*, Harvard Dissertations in Classics, Edited by Gregory Nagy,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1.
- Gill, David H., "Thysia and SElāMiM: Questions to R Schimd's Das Bundesopfer in Israel," *Biblica* 47:2 (1966), 255-62.
- Honea, Sion M., "Homer's Daitos Eises, the Greek Sacrificial Meal," *Journal of Ritual Studies* 7:2 (1993), 53-68.
- Jefferson, Lee M., "The Pagan Feast and the Sacramental Feast: The

- Implication of Idol Food Consumption in Paul's Corinth," *Sewanee Theological Review* 51:1 (2007), 22-47.
- Jeremias, Joachim, "The Eucharistic Words of Jesu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 Klinghardt, Matthias, *Gemeinschaftsmahl Und Mahlgemeinschaft: Soziologie Und Liturgie FrüHchristlicher Mahlfeiern*, Tübingen: Francke, 1996.
- Lee, Yong-Jine, "주의 만찬의 교제적 성격: 고전 11:23b-26을 중심으로," 「신약 논단」 19:2 (2012), 561-92.
- Lietzmann, Hans, and Robert D. Richardson, *Mass and Lord's Supper: A Study in the History of the Liturgy*, Leiden: E J Brill, 1979.
- Lovejoy, Arthur O., *The Great Chain of Being: A Study of the History of an Id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1948.
- Maccoby, Hyam, "Paul and the Eucharist," *New Testament Studies* 37:2 (1991), 247-67.
- MacDonald, Dennis R., *Christianizing Homer: The Odyssey, Plato, and the Acts of Andrew*,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The Gospels and Homer: Imitations of Greek Epic in Mark and Luke-Acts*, The New Testament and Greek Literature, Vol. I, Lanham · Boulder · New York · London: Rowman & Littlefield, 2015.
- \_\_\_\_\_, *The Homeric Epics and the Gospel of Mark*,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Mythologizing Jesus: From Jewish Teacher to Epic Hero*,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5.
- \_\_\_\_\_, ed., *Mimesis and Intertextuality in Antiquity and Christianity*,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1.
- McConnell, John F., "The Eucharist and the Mystery Religions," *Catholic*

- Biblical Quarterly* 10:1 (1948), 29-41.
- Nock, Arthur Darby, "The Cult of Heroes," *Harvard Theological Review* 37:2 (1944), 141-74.
- Noy, David, "The Sixth Hour Is the Mealtime for Scholars: Jewish Meals in the Roman World," In *Meals in a Social Context*, edited by Inge Nielsen and Nanne Sigismund Nielsen, Aarhus Studies in Mediterranean Antiquity, Aarhus, Denmark: Aarhus University Press, 1998, 134-44.
- Oster, Richard F., *1 Corinthians*, The College Press NIV Commentary, Joplin: College Press Publishing Company, 1995.
- Park, Rohun, "Between and Beyond Reciprocity and Communion," 「한국 기독교신학논총」 101 (2016), 157-73.
- Peters, Edward H., "St. Paul and the Eucharist,"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10:3 (1948), 247-53.
- Plato, "Republic," In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edited by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New York: Pantheon Books, 1961.
- Power, David Noel, "Words That Crack: The Uses of 'Sacrifice' in Eucharistic Discourse," *Worship* 53:5 (1979), 386-404.
- Riley, Gregory J., *One Jesus Many Christs: How Jesus Inspired Not One True Christianity but Many*, Minneapolis: Fortress, 1997.
- \_\_\_\_\_, *Resurrection Reconsidered: Thomas and John in Controvers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5.
- \_\_\_\_\_, *The River of God: A New History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HarperCollins, 2001.
- Schmidt, Joél Z.,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Handed on to You...’ (1 Cor 11:23)," *The Conrad Grebel Review* 21:2 (Spr 2003), 59-71.

- Sigal, Phillip, "Another Note to 1 Corinthians 10:16," *New Testament Studies* 29:1 (1983), 134-39.
- Smit, Joop F. M., "'Do Not Be Idolaters': Paul's Rhetoric in First Corinthians 10:1-22," *Novum Testamentum* 39:1 (1997), 40-53.
- Smith, Dennis E., *From Symposium to Eucharist: The Banquet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_\_\_\_\_, "Meal Customs (Greco-Roman)," In *Anchor Bible Dictionary* 4, edited by David Noel Freedman, New York: Doubleday, 1992, 650-53.
- \_\_\_\_\_, "Meal Customs (Sacred Meals)," In *Anchor Bible Dictionary* 4, edited by David Noel Freedman, New York: Doubleday, 1992, 650-53.
- Ullucci, Daniel C., "Sacrifice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Recent and Current Research,"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13:3 (2015), 388-439.

<초록>

##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레코-로만의 공동 식사

-뛰시아(θυσία) 희생제의로 살펴본 그리스도교의 성찬-

조재형

(케이씨대학교 강사)

이 논문은 사상사 비평법(History of Ideas)을 사용해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공동식사를 그레코-로만 종교의 ‘신성한 식사’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교 성찬의 기원과 신학을 추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스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그리스도교 성찬(또는 성만찬, 주의 만찬)을 주로 유대교의 유월절 전승 속에서 연구하였다. 반대로 덕스와 리츠만은 성찬의 유월절 기원보다는 헬라사상과 그리스의 희생제의에서 접근하였고, 스미스, 클링하르트, 버커트, 질은 그레코-로만의 거룩한 식사와 ‘뛰시아’제의로 신약성서의 성찬 단락을 설명하였다. 그레코-로만의 식사 관습의 특징은 기대어 놓기, 데이프논과 심포지움으로 이어지는 식사의 순서, 그 순서를 연결시켜주는 헌주 의식이었다. 이를 통해서 그레코-로만 문화의 사람들은 코이노이아(공동체), 우정과 평등의 가치관을 창출하여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경계를 설정하였다. 신성한 식사는 그레코-로만의 뛰시아제의 안에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고린도교회에서 식사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성찬을 잘 설명해 준다. 그레코-로만 시대의 모든 형태의 식사는 희생 제의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동물의 피와 고기를 이용해서 드리는 뛰시아제의는 중요했다. 뛰시아제의 후에는 반드시 참여자들이 함께 먹는 식사가 따랐기 때문에 그 식사는 종교적 의미를 항상 포함했다. 뛰시아제의는 호메로스의 작품 속에서 온전한 형태로 등장하고, 심지어는 70인역에서도 히브리어 제마가 뛰시아로 번역되어 약 400회나 나타나며, 신약성서에는 약 20회가

나타난다. 이것은 뛰시아 제의의 구조와 의미가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신약성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바울은 뛰시아를 하나님의 뛰시아와 귀신의 뛰시아로 구분하여 이방제의 식사와 그리스도교의 식사를 동전의 양면처럼 비교해서 그리스도교의 성찬을 위해서 뛰시아를 사용한다. 즉, 그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이돌오뛰토스)를 공동체(코이노이아)의 연합을 구체화한 성찬으로 대체하여, 그리스도의 피의 코이노이아와 몸의 코이노이아로 구체화한다(10:16).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7-34절의 주의 만찬을 그레코-로만의 식사 관습의 배경에서 해석한다. 고린도교회가 먹을 때에 분열이 있었던 것(34절)은 예배 때에도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회 다음에 이어지는 주연에서 찬양과 기도, 영적 활동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고린도교회가 소규모의 가정교회에서 모였다면, 그 교회의 예배는 식당의 식탁 앞에서 드러졌을 것이다. 빵과 포도주가 제공되는 만찬에서 그들은 공평한 식사(데이토스 아이세스)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한 동일한 식사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다. 공동체의 식사 윤리에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하다(11:33-34). 필자는 바울의 성찬을 그레코-로만의 식사관습과 뛰시아 제의를 통해서 해석하여,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기원을 제공하는 풍성한 성찬 신학 담론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Abstract>

## The Greco-Roman Common Meal in 1 Corinthians: The Christian Eucharist in Light of the *Thysia* Sacrifice

Lecturer Jae Hyung Cho  
(Korea Christian University)

By using ‘history of idea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mmunity meal of 1 Corinthians in the perspective of the sacred meal of Greco-Roman religion to trace the Christian Eucharist and its theology. Until now, J. J. Jeremias and many scholars have studied the Christian Eucharist (or the Lord’s supper) through the Jewish Passover tradition. Unlike them, Gregory Dix and Hans Lietzmann preferred Greco-Roman thought and sacrifice to the Passover origin. Dennis Smith, Matthias Klinghardt, Walter Burkert, and Sion Honea explain the New Testament Eucharistic stories in the Greco-Roman Sacred meal and *thysia* cult.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eco-Roman meals were the reclining, the order of meals that led to *deipnon* and symposium, and libation that links the order. Through this, the people of the Greco-Roman culture created the community of *koinonia*, and a sense of friendship and equality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and boundaries of the community. Because the sacred meal appears in the *thysia* of Greco-Roman, it explains well the Eucharist of 1 Corinthians that relates to eating.

All meals in the Greco-Roman period is connected with sacrifices. Among them the *thysia* that offers blood and meats of animals is important. In addition, after the *thysia*, all participants eat meals together, which always includes religious meanings. The *thysia* appears in full form in the work of Homer, and even in the Septuagint. The Hebrew *Zeba* is translated into

*thysia* about 400 times, and 20 times in the New Testament. This indicates that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thysia* influenced not only the Old Testament, but also the New Testament. Paul distinguishes God's *thysia* from demons' *thysia*, and he compares them with a meal of Christianity and a meal of pagan cults as both sides of a coin. By doing so, he uses *thysia* for Christian Eucharist. In other words, substituting the meat of the idol(εἰδωλόθυτος) for the Eucharist that incorporates the unity of the community (koinonia), he embodies the koinonia of the blood of Christ and the koinonia of the body of Christ (10:16). In particular, Paul interprets the Lord's supper in 1 Corinthians 11:17-34 from the background of Greco-Roman meal custom. That the Corinthian church was divided when they ate informs that they were division in the worship (v. 34). After their banquet, in the symposium, they practiced spiritual activities such as hymns and prayers. If the Corinthian church was assembled in a small house church, their worship would have been presented in front of the dining table. At the dinner where bread and wine were served, they were able to participate in an equitable diet (*deitos eises*) and also had the same value of meal. Therefore, by interpreting Paul's Eucharist through Greco-Roman meal custom and *thysia*, I believe that the enriched Eucharistic discourse can be created for the Christian identity and origin.